

## 용산참사 오리발!

#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대/임시상가 보장하라

‘민간개발’에는 공공의 책임 없다?

지난 1월 20일 용산에서 벌어진 철거민 살인진압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온 도시를 공사판으로 만들어 주민들이 대책없이 생존권을 박탈당하도록 방치하는 정부와 서울시의 개발정책에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월 8일 실시된 서울시 국정감사 임시시장과 임대상가 등 생계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시상가는 조합과 합의할 문제이며, 임대상가 역시 점포 분양자와의 계약 문제이므로, 결국 서울시가 관여할 수 없는 민사상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용산에서의 개발사업이 ‘민간개발사업’이므로 공공이 관여할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발 조합에는 ‘공익사업’, 세입자에게는 ‘민간사업’?

그러나, 과연 ‘개발사업’이 ‘민간’의 문제이고, 사인(私人)과 사인 간의 문제일 뿐입니까?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조합이 결성됩니다. 재개발 조합은 세입자는 전혀 끼어들지 못할뿐더러 지분을 많이 가진 거대 지

주, 개발이익을 노리는 투기세력만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비민주적인 운영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조합은 시공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건설사들의 입찰 경쟁에서 수많은 비리가 발생합니다. 각 구청 등 지자체 장, 고위 공무원 등 특히 개발제도를 꿰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을 주무르는 실세가 됩니다. 주거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보상비 4개월분, 상가세입자에게는 영영손실보상비 4개월분 이외에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개발기간동안 살아갈 대책도, 개발 이후 다시 입주할 수 있는 대책도 없이 조합이 고용한 용역업체직원(용역강패)의 이주 협박에 시달리다 쫓겨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제5항을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정비촉진에

위한특별법’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진행되는 뉴타운이나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공익사업인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근거에 따라 각 지자체는 조합을 인가하고 개발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해 강제수용권까지 부여해주는 등 각종 개발특혜를 제공합니다. ‘사인’들이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공익’의 명분을 달아 개발 규제완화특례를 제공하면서 세입자들의 절규는 철저히 외면해버리는 것입니다.

임대상가 법적 근거? 뉴타운은 조례도 없이 시작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야기합니다. 상가세입자에 대한 임대상가, 임시상가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요.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2002년 뉴타운사업을 근거법 없이 시 조례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이렇듯 개발 정책은 갖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밀어붙이면서도, 세입자 대책은 상위 근거법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들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한 술 더 떠 오세훈 시장은 유가족

과 범대위가 무리한 요구안을 앞세움으로써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거짓 증언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범대위는 몇 차례 실무접촉을 제외하고는 서울시와 공식적인 협상을 벌인 적이 없으며 따라서 협상이 타결 직전까지 갔던 적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용산참사의 근본 발생원인인 철거민세입자 생계대책으로서 요구한 임시상가 마련, 임대상가 보장이라는 범대위 요구에 대해 서울시가 불가능하다는 답으로 일축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철거민 생존권 보장하다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일말의 책임감도, 의지도 없었뿐더러, 거짓 증언으로 국민을 기만한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서울시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더 이상 철거민을 우롱하지 말고 임시상가와 임대상가 등 생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유가족을 만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정녕 용산참사의 해결 의지가 있다면, 철거민들의 생존권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철거민 생존권 보장하고  
용산참사 해결을위해  
당장 나서라!**



“철거민은 죽든말든 명품 디자인으로 멋부려야겠다”  
이윤에만 눈이 멀어 뉴타운/재개발을 밀어붙여 용산의 다섯 철거민을 죽음으로 내몬  
**오세훈 서울시장!**  
사람 잡는 개발을 ‘디자인’으로 포장하여 ‘디자인올림픽’ 놀음판까지 벌이는 살인개발 지휘자를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합시다!  
**용산 살인개발 주범, 오세훈 서울시장!  
용산참사 해결에 나서라!**

# 용산참사의 주범들, 국민법정에서 유죄판결! 진실은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다



▲ 10.18 서울 명동 카톨릭회관에서 열린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 용산참사 주범들 국민법정에서 모두 유죄 선고!

10월 18일 열린 용산참사 국민법정 결과 배심원단은 용산철거민사망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피고들에게 유죄선고를 내렸습니다. 과잉진압으로 화재사고를 유발하고, 화재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진압작전을 지속했던 것 등 참사의 직접적 책임 때문입니다. 또한, 용산4구역 개발사업이 세입자 요구는 고려하지 않고 용역폭력을 동원해 강행되었던 점, 그리고 세입자 생계대책 없는 개발 사업을 서울시, 전국 곳곳에서 막무가내로 벌이고 있는 점 등이 참사의 간접적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강경진압과 막개발을 확대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된 점이라는 데 배심원단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비로소 용산참사의 진실이 한층 밝혀진 것입니다.

용산참사 공판에서 쏟아지는 다른 진술과 의혹들  
검찰 수사기록 3,000쪽이 여전히 은폐된 상황에서 진행되는 재판에서도 기존 검찰 주장과 다른 진술과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9월 15일 있었던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경찰의 채증 동영상의 고의 누락 및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6명이 촬영한 영상에는 대부분이 불길의 확산되는 시간대 결정적인 장면에서, 녹화를 하지 않거나, 소리가 나오지 않아, 고의 누락 및 조작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소방·감식 전문가들,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들은

“발화 원인을 화염병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발화 지점도 추론하기 어렵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망루 내부 4층에서 3층 계단에 던진 화염병이 발화 원인’이라는 주장과 다른 내용들입니다.

전문가, 경찰특공대 투입은 “위험한 결정”, “들어가야 말아야 한다”

또한 현장 목격 증인으로 나온 용산 소방공무원(16년 근무)은 “시위대가 옥상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는 진술은, “실제 불을 질렀다는 것이 아니라 급한 마음에 구급차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의 과민반응”이었다고 자신의 진술을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당시 상황에서 특공대 진압에 대해 “위험한 결정이다”, “그런 상황은 들어가야 말아야 한다”고 답변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찰특공대, 진술 반복 “안 본 부분도 봤다고 씨”, “적개심 때문에...”

24일 재판에서는 당시 경찰특공대의 진술 반복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측 증인 특공대원 6명은 모두 “발화원인으로 화염병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고, 검찰조사에서는 발화원인을 “추측으로 화염병”이라고 했다고 진술을 반복하였습니다. 특공대 1제대장도 “농성자가 시너를 부었다고 입력돼 있어 머릿속에 정리된 것을 가상해서 진술했다. 본 것이 아닌 생각이다”라며 “직원 장례식도 있고 해서 안 본 부분도 봤다는 식으로 썼다”고 진술조서 반복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 죽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던 특공대 2제대 팀장은 “지금보다 피하라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 때는 적개심을 느껴서” 그렇게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특공대 망루 내 인화물질 양도 모르고 작전

또한 특공대원들과 망루 진압에 투입된 1제대장은 망루 내 시너와 인화물질의 양이 정확히 얼마인지 전혀 보고받지 못하고 출동했고, 심지어 화재가 나기 바로 직전인 2차 진압 당시 소화기는

대부분 소진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또 애초 동원하기로 한 장비도 없는 상황에서 작전을 일부 변경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특공대의 작전 준비를 언제 했는지와 관련해서, 1제대장은 “19일 오전 8시 20분에 특공대 참모회의에서 특공대장에게 출동하라는 전화가 왔지만 어디서 전화가 왔는지는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변호인들이 “오산 세교 지구는 54일 농성 후에 진압을 해 화염병도 다 소진하고 농성을 이탈한 사람들을 통해 내부 상황을 충분히 파악했다. 이처럼 내부를 파악할 작전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시간이 많아 세밀한 파악을 하면 좋지만 명령이 떨어져서 검거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특공대원, 시너로 환각상태에서 작전 강행

28일 재판에서는, 특공대원들은 “1차 진압 때는 시너 냄새가 별로 안 났으나 2차 진압 때는 환각 상태였다”, “마약을 하면 그런 느낌이 나겠다고 느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단이 그런 상황에서도 “빨리 진압하라고 해서 간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제가 지휘관이면 그 상황에서 보류하겠지만, 지휘관은 밖에 있어 상황을 몰라서 그런 듯하다”고 하였습니다.

철거민이 아닌, 책임자가 법정에서야

이처럼 검찰이 기존에 발표한 공소장의 내용과 다른 진술들과 반복이, 검찰측 증인들에게 마저 쏟아져 나오고, 경찰 지휘부의 무리한 진압 명령의 진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미제출 수사기록 3천 쪽에 담겨있을 내용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검찰이 감추는 진실을 밝히고, 생존한 철거민들이 아닌 살인진압의 지휘 책임자들이 법정에서야 합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살인개발로 경찰 폭력으로 철거민을 죽음으로 내몬 이명박 정부,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합시다!

## 용산 참사 주범들

<p><b>천성관</b></p>  <p>CSG</p> <p>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수사기록 3천쪽 꼬불친 죄</p>	<p><b>오세훈</b></p>  <p>OSH</p> <p>현 서울시장 강제퇴거 나몰라라 죄</p>	<p><b>이명박</b></p>  <p>LMB</p> <p>현 대통령 막개발에 앞장서 서민들의 집과 삶을 빼앗은 죄</p>	<p><b>박장규</b></p>  <p>PJG</p> <p>현 용산구청장 떼잡이 망발 입 놀린 죄</p>	<p><b>김석기</b></p>  <p>KSL</p> <p>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특공대 남발하고 무전기 꺼놓은 죄</p>	<p><b>조합, 건설사, 용역업체</b></p>  <p>용역업체 건설재벌 재개발 조합</p> <p>개발이익 눈멀어 철거민 궁지에 몰은 죄</p>
-------------------------------------------------------------------------------------------------------------------------------------------------------------	----------------------------------------------------------------------------------------------------------------------------------------------------	----------------------------------------------------------------------------------------------------------------------------------------------------------------------	---------------------------------------------------------------------------------------------------------------------------------------------------------	-----------------------------------------------------------------------------------------------------------------------------------------------------------------	----------------------------------------------------------------------------------------------------------------------------------------------------------------------------------------